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207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41)

백록담이 지척에 한라산 동부능선 최고봉

입력 : 2004. 08.06. 00:00:00



▲흙붉은오름은 붉은 색깔의 송이 때문에 이름이 유래됐다. 오름 정상에는 송이층이 확연히 드러난다. 한라산 동부능선에서 가장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이 오름 너머로 한라산 정상 동능이 보인다.

○...7월 24일에는 한라산 동부 해발 1,200m~1,300m에 위치한 돌오름과 흙붉은 오름을 탐사했다. 일찌감치 예보됐듯이 제주의 날씨는 이미 무강우 17일째로 연일 30℃ 이상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농작물의 가뭄피해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탐사단원들에게도 목마름과 기력의 소진을 안겨준 하루로 기록됐다. 탈진이 우려될 정도다. 탐사단은 여름철 '땡별탐사'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탐사는 곧 재개된다.

◇흙붉은오름

흙붉은오름은 한라산 동부능선에서 가장 고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맑은 날 정상에 보일 때면 백록담 동능이 지척이다. 흙붉은오름은 오름을 덮고 있는 흙이 붉다고 해서 유래됐다. 화산폭발시 분출한 송이층의 색깔 때문이다. 제주의 오름화산체는 스킨리아라고 불리는 송이층이 특징적이다. 이 때문에 붉은오름이라 불리는 오름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흙붉은오름은 한자로 토적약(土赤岳)이라고도 한다.

탐사단은 성판악휴게소에서 출발하여 해발 약 1,150m까지는 등반로를 벗어나 돌오름과 흙붉은 오름 사이로 잡목과 조릿대 숲을 헤치며 흙붉은오름의 북동측사면까지 진행하였다. 이 구간에서는 서어나무 등의 관목이 울창하여 탐사단의 진행위치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원래는 흙붉은오름보다 조금 아래에 위치한 돌오름을 먼저 탐사하는 일정이었으나 숲길을 잘 못 들고 말았다. 숲을 헤치고 나와보니 돌오름이 아니라 흙붉은오름 경사면에 올라와 있음을

알게됐다.

정상에는 이름에 걸맞게 붉은 흙 '송이'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동쪽으로 떨어진 굽부리 안에는 구상나무 군락이고 정상부에는 제주조릿대와 시로미가 뒤엉켜 자라고 있다. 시로미군락이 영역을 넓히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머지 않아 조릿대에 눌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라산 박사' 부종휴는 1970년대 바로 이곳에서 미기록종인 흰진달래를 발견하고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오름나그네' 김종철은 "분홍색 꽃 무리 속에 한 그루 순백의 꽃을 피운 게 눈에 띄는 그것은 하나의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미 타계한 그를 떠올리게 하는 흙붉은오름의 추억의 하나이다"고 회고했다.

굽부리 사면에는 조릿대에 뒤덮힌 묘 1기가 위치해 있다.

흙붉은오름은 제주 북부와 동부지역 하천을 발원시키고 있어 지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오름을 중심으로 남쪽 기슭에는 성산읍·표선면의 경계를 이루는 천미천이, 북쪽 기슭에는 제주시 동부를 흐르는 화북천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데 이의 영향 때문인지 전사면은 매우 가파르다.

"지형도에 표시된 하천지류의 연장을 살펴보면, 흙붉은오름의 서쪽사면 끝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는 화북천이 시작되어 흐르고 동쪽으로는 천미천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하천지류의 형성은 흙붉은오름이 제주도 북동부지역과 남동부지역을 갈라주는 분수령임을 의미하는 것이다."(정차연 박사)

정상에서는 제주시까지는 물론 동부 지역 오름군을 시원스레 조망할 수 있다. 정상쪽으로 눈을 돌리면 왕관능이 구름과 탐라계곡 능선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다.

◇돌오름

돌오름은 흙붉은오름의 동쪽에 인접하여 작지만 우뚝 솟아 있다. 흙붉은오름 바로 아래쪽에 불쑥 솟아오른 봉우리에 소나무가 자라난 오름이 바로 돌오름이다. 선인들은 돌오름을 가리켜 '숫오름'이라 하며 남성을 상징한다고 했고 그 위쪽 흙붉은오름은 옥문형(玉門形)의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탐사단은 흙붉은오름의 정상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지질과 산악팀 위주로 돌오름 탐사에 나섰다. 흙붉은오름을 오르느라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강행군이 아닐 수 없었다. 탐사위원 정차연 박사의 학문적 욕구가 빛을 발했다.

정 박사는 "돌오름은 지형도 등의 평면상으로는 동-서 방향으로 약간 신장된(장경 260m, 단경 210m) 거의 원형에 가까우며, 입체적으로는 주변 지형과 완전히 독립된 정상부가 약간 평평한 돔형 모양의 오름"이라고 말했다.

돌오름은 민간에서는 신선오름으로도 불린다. 이곳에서 최후를 맞는 노인은 신선이 되어 영생한다는 전설 때문이다. 자식들은 부모가 늙고 병들면 이 오름자락 굴에다 모셔 와 음식을 마련해 두고 가면서 이승살이를 다한 뒤 신선으로 승천하기를 바랐다. 한 사냥꾼이 이 앞을 지나다 누워 있는 웬 노인에게 큰 구렁이가 다가가는 것을 목격, 단발에 쓰아 죽인 뒤 노인을 업고 마을로 내려가 이를 알린 뒤로는 그런 끔찍스런 풍습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다

하산은 올라올 때와 달리 흙붉은오름에서 북쪽방향으로 관음사를 향해 내려갔다. 흙붉은오름 정상에서 곧장 북쪽으로 오름 산체의 가파른 경사를 지나 해발 약 900m 지점까지는 화북천 계곡을 좌측에 두고 접하면서 화북천을 길 안내의 지표로 삼아 하산하였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리포트]지질특성 그대로 반영된 오름 정상

금번에 탐사한 두 오름(흙붉은오름과 돌오름)은 그 오름 산체를 구성하는 지질특성이 잘 반영된 이름이 붙여져 있다.

흙붉은오름의 정상부는 심한 바람에 의해 침식된 것으로 판단되는 송이(분석)층이 식생으로 덮이지 않고 노출된 부분이 많아 멀리서 보면 마치 흑회색~적회색의 모래와 자갈로 덮인 사막과 같은 부분이 오름의 정상에 보인다.

반면 돌오름은 오름 전체가 울창한 식생으로 덮여져 있어 멀리서 오름을 볼 때는 쉽게 그 이름의 유래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오름을 오르다 보면 비록 풍화가 심하여 암석의 강도는 약하지만 오름 전체가 담회색의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치 매우 작은 규모의 산방산과 같은 돌로 구성된 오름인 것을 알 수가 있다.

▷흙붉은오름은 송이만 분출한 것이 아니라 송이층과 동일한 조성으로 된 많은 양의 용암을 분출하였는데, 주로 오름의 북동사면에서 용암이 흘러나와 방사상으로 넓게 하루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흙붉은오름의 북동사면 해발 1,350m 아래로는 용암이 송이층에 연속되는 능선을 형성하여 송이층과 용암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오름의 분화구는 원형 분화구로 분류할 수 있으나, 그 화구의 깊이가 얕고 동쪽방향으로 형성된 좁은 계곡으로 트여져 있다. 아마도 흙붉은오름은 화산활동의 초기에 많은 양의 송이가 분출되어 오름 중심부에 대접형태의 분화구를 가진 원추형의 화산체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이후 오름의 북동측면에서 용암분출이 연속됨에 따른 화산체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그 원형이 대부분 파괴되어 현재의 모습과 유사하게 변하였을 것이고 또한 화산활동이 끝난 후의 비·바람의 침식작용에 의해 지금의 모습을 나타내게된 것으로 판단된다.

▷돌오름은 오름이 시작되는 가장 낮은 지점부터(산체의 동측, 해발 1,220m) 정상(해발

1,278.5m)까지의 높이는 약 60m로 매우 작은 산체를 이루고 있다. 오름 정상부에는 서쪽으로 치우쳐 약간 오목하고 평평한 분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분화구인지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구분하기 모호하다. 오름 지형을 벗어난 사방에는 흙붉은오름에서 흘러나온 반상장석현무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두 지질의 경계부에서는 돌오름을 덮으면서 분포한다. 따라서 흙붉은오름보다 돌오름이 먼저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원래의 돌오름 산체의 상당부분은 반상장석현무암에 피복되어 보이지 않고 지하로 연속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돌오름은 전체가 담회색의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오름을 구성하는 조면암에는 다량의 장석류 광물과 매우 소량의 각섬석 광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성을 나타내는 조면암은 백록담의 서측벽과 인근, 영실의 오백나한 등 주로 한라산 정상부 일원에 분포하며, 대부분 돛상의 관입암체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돌오름 또한 원 지반을 뚫고 돛상으로 관입하여 그 산체가 형성된 이후 정상 일부만을 남기고 그 아래는 흙붉은오름에서 흘러온 용암에 의해 피복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차연 탐사위원(농업기반공사/지질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